

【논 문】

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

유 수 정*

┃ 차 례 ┃

1. 들어가며
2. 습작으로서의 「합숙소의 밤」
3. 프롤레타리아문학 「합숙소의 밤」
4. 민족과 제국을 넘는 장, ‘만주’
5. 일본어와 한국어의 사이, ‘만주’와 조선의 사이
6. 마치며

국문초록

「합숙소의 밤」은 조선의 대표적 프롤레타리아 문학자이자 이론가인 한설야의 초기작품으로 『만주일일신문』(1927.1.26~27)에 일본어로 발표된 텍스트와 『조선지광』(1928.1)에 한국어로 발표된 텍스트가 있다. 문학습작기에 자연주의문학을 모방하여 창작된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은 옛보기를 하는 남자 주인공과의 거친 성욕을 그린 자연주의계열 소설이다. 그에 반해 그 1년 후에 같은 제목으로 투쟁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발표한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은 ‘만주’ B시 탄광의 조선인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적으로 그리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텍스트가 발표된 시기의 정세적, 문단적 상황을 배경으로 같은 「합숙소의 밤」이라는 제목을 붙여, 푸순탄광이라는 같은 장소를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두 텍스트가, 그 내용도 표현언어도 완전 다르다는 것을 문제시하였다.

*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강사

나아가 텍스트에 산재돼 있는 실제의 사건들을 추적하여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만주국’ 이전, 조선의 프롤레타리아문학자에게 있어서 ‘만주’라는 공간이 갖았던 의미를 밝혔다. 공간적인 배경은 같은 ‘만주’의 탄광촌으로 하면서도 일본어판에서는 그곳이 ‘만주’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주’라는 토포스가 갖는 의미는 희박했다. 그에 반해 한국어판에서 ‘만주’의 ‘탄광왕국 B시’는 조선인 탄광노동자가 파두제라는 이중착취의 고용제도 하의 일본인 감독 밑에서 일하는 억압/피억압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또한 ‘만주’는 5.30사건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토에 퍼진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운동이 일어난 현상이었고, 그 속에서 조선인(‘나’)가 지도적 위치를 점해서 활동하는 장이었다. 그리고 평위상과 장쥘린이 각각 일본과 소련의 힘에 얽고 대결하는 전장이었고, ‘불령선인’의 무장독립항쟁과 일본제국군의 ‘토벌’이 펼쳐지는 장이었다. 한설야는 이러한 ‘만주’에서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의 연대를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 속에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27년에 발표된 일본어판에서 ‘만주’는 소박한 문학적 모티프에 지나지 않았지만, 1928년에 발표된 한국어판에서 ‘만주’는, 민족·계급투쟁의 장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주’는 다양한 힘이 모여 길항·융합하면서 교차하고, 다양한 전쟁과 전투가 전개되는 ‘초국가적 공간’이기 때문에야말로 조선에서는 표현·실현할 수 없는 탈국가·탈민족적인 연대, 인터내셔널한 프롤레타리아트(또는 피억압민족의 민중)의 단결과 혁명을 외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힘이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만주’라는 토포스는 한설야에게 ‘만주’를 적극적으로 그리게하는 요인이 되었음과 동시에, 조선을 배경으로는 그릴 수 없는, 정치적으로 제약된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주제어: 한설야, 합숙소의 밤, 만주, 프롤레타리아문학, 푸순탄광

1. 들어가며

www.kci.go.kr

日新聞)』¹⁾ 문예란에 1927년 1월 26일과 27일, 2회에 걸쳐 아주 짧은 일본어 소설이 발표되었다. 작가는 「撫順 雪野生」으로 되어 있고, 「合宿所の夜」이라는 제목이다. 「撫順」은 물론 당시 만철 철도부속지로 「만주」 최대의 탄광이 있었던 도시 푸순을 말한다. 「雪野生」은 후에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선도하는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한설야(1900~1976)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확히 1년 후인 1928년 1월, 경성(京城)에서 발행된 『조선지광』²⁾에도 「합숙소의 밤」이라는 단편소설이 한설야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한국어로 발표됐다. 조선 출신 작가가 먼저 「만주」의 미디어를 통해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고, 다음에는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를 통해 모국어로 같은 제목의 작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의 인적 이동과 언어·문학의 정치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을까?

한설야는 본명이 한병도(韓秉道)이고,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태어나 고등보통학교를 서울과 함주에서 다녔다. 한때 1년가량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서왈보(徐曰甫)³⁾ 등과도 교류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 체포, 3개월간 구금되

1) 만철의 초대총재 고토 신페(後藤新平)의 초빙으로 도쿄인쇄 사장 호시노 사쿠(星野鋤)를 사주(社主)로 맞아 1907년 11월 3일 『만주일일신문』이 창간되었다. 고토는 당초 “만몽개혁의 지침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할 유력지를 만들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상적인 신문’을 만들려했다고 한다. 1927년 10월 31일에는 민간지인 『요동신문(遼東新報)』과 합병하고,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본사를 다롄에서 평토편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전만주의 일본어신문을 통합하였다. 1938년 10월 11일에는 신장을 대표하는 『만주일보(滿洲日報)』가 「만주국」 총무청 홍보처 산하에서 발행되고, 1944년 3월 31일에는 『만주일일신문』은 『만주신문』에 합병돼, 『만주일보』로 이름이 바뀐다. 李相哲, 2000, 『滿洲における日本人経営新聞の歴史』, 凱風社, 59~63쪽, 179~191쪽 참조.

2) 1922년 11월에 창간, 1930년 11월 통권 제100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김필진은 주로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지향하는 문인들이 참가하였고,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가동맹(KAPE)의 준기관지적인 성격을 띠었다.

3) 서왈보(1887~1926).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한국 최초의 군인비행사.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안창호, 이갑 등과 함께 시베리아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투사를 양성하였다. 중국에 망명하여 1914년 바오딩바오(保定堡) 육군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평위상(馮玉祥) 군벌의 육군 정위(正尉)로 활약하였다. 1928년 비행기사고로 사망. 사이트 「서울 육백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 참조.

기도 했다. 192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日本大學)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에는 그다지 가지 않고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에 귀국하였다.

한설야가 조선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한 것은 이광수와 최서해의 추천으로 1925년 『조선문단』 1월호에 「그날 밤」을 발표하면서였지만, 그 전에도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에 투고하고 있었다.

선행논문⁴⁾에서는 한설야의 초기소설을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고 있다. 문학 모색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그는 주로 ‘서구 자연주의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습작을 계속 썼다. 그 중 한 경향은 ‘관능적인 탐미와 사회적인 자아’이고, 또 한 가지 경향은 ‘부정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인식’이다. 전자의 작품군은 모파상이나 졸라 등 유럽 자연주의 작가 들을 모방하여, 거칠게 성욕을 묘사하는 등, 습작기적 특징이 현저하게 보인다. 이 작품군은 특정의 주제나 이념 보다는, 하나의 제재를 갈고닦아 추구하는, 신인다운 작품 구성력과 개성이 눈에 띄는 정도로, 현실을 보는 눈이나 묘사력은 소박한 수준에 그친다.

한편, 후자의 작품은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또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 빈번히 등장한다. 한설야 문학의 특징을 현실의 추구하고 변혁적인 열망의 표현으로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이 작품군에서 그러한 특성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갖춰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설야는 1926년 봄, 아버지가 많은 부채를 남기고 타계하자 가족들을 이끌고 ‘만주’ 푸순으로 이주한다. 이 ‘만주’ 체험이 그 후의 한설야 문학을 전개하는 과정에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내면화하고,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보기

4) 강진호, 2008, 『그들의 문학과 생애 - 한설야』, 한길사, 41쪽 참조.

때문이다. 한설야가 조선에 돌아온 것은 1927년 1월로, 귀국 후 바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이하 KAPF)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합숙소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는 바로 이상과 같은 시기에 걸쳐서 집필되었고 발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합숙소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푸순 탄광이라는 같은 장소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1927년과 1928년,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 한설야가 쓴 두 개의 「합숙소의 밤」을 대상으로, 작가의 계급과 민족과 언어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또한 텍스트 주변의 상황을 텍스트 해석에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이를 통해 ‘만주’의 노동현장을 매개체로 하는 조선과 일본제국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습작으로서의 「합숙소의 밤」

1)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일본어로 쓰여진 「합숙소의 밤」은 2회에 걸쳐 신문연재된 콩트이다. 노천 채굴장이 있는 탄광의 노동자 합숙소가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으로 되어 있다. 그 합숙소에는 100명의 노동자와 1명의 오야카타(親方), 그리고 오야카타의 조선인 처가 있다.

‘지옥’과 같은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탄광노동자 良太의 유일한 즐거움은 한밤중에 몰래 옆방, 즉 ‘극락’ 같은 오야카타의 방을 훑쳐보는 것이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시작된다.

“콜록…콜록…”

그것은 기침소리가 구슬소리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였다. 퀴퀴한 합숙소 구석에서 근질근질한 몸을 굽적이고 있던 良太의 어렴풋한 잠기운이 순식간에 머리에서 빠져나갔다. 그 순간 그는 지옥 같은 자기들의 마루와 바로 옆의 극락 같은 오야카타의 마루와의 너무나도 확연한 콘트라스트를 느꼈다. 그것은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를 가진 두 존재이기도 했다. 너무나도 높은 성벽이 형태도 없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콜록”이라는 묘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루에도 흘러들어오는 것인가.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주 일일신문』 1927년 1월 26일, 제5면. 이하 날짜만 표시. 인용자 역)

‘작년 가을’에 데려온 오야카타의 조선인 처는 합숙소 남자들의 주목의 대상이었다. 주인공 良太는 자기가 남자들 중에서는 가장 어리고 ‘호남[好男子]’이기 때문에 ‘여왕’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숙식하는 큰방과 오야카타 부부가 생활하는 마루 사이에는 마치 ‘높은 성벽’같은 벽이 존재하고, 그 벽을 경계로 양편으로 나뉘어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 그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야카타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성벽’을 넘나드는 것은 오야카타만이 아니라, ‘콜록’이라는 ‘묘음’과 良太의 시선도 그 벽을 넘어서 큰방과 마루를 오가고 있다. ‘콜록’이라는 묘음과 良太의 시선은, 긴장감 속에서 벽을 통과해 왕래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良太의 욕망=성욕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욕망은 良太의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다. 良太는 엿보기로 흥분한 끝에 벽을 넘어 여자에게로 가고픈 욕망과 자신의 생활을 쥐고 있는 오야카타가 두려워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良太의 욕망은 오야카타의 등장으로 매번 좌절되고, 마음속의 갈등도 종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이놈, 아직 안 자느냐? 아침 5시 반이다.”

대장은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합숙소 문을 열어 안을 조사해 보고, 만약 안 자는 사람이 있으면 호되게 혼냈다. ‘짜사랑하는 자’는 자주 그런 꼴을 당해서 쭈뼛쭈뼛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잠들어 버렸다 실로 억울한 일이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1927.1.27)

오야카타가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날에 마음껏 ‘눈 보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상보다 빨라진 오야카타의 귀가로, 즐거움도 끝나고 良太의 “젠장……”이라는 말과 함께 소설이 끝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텍스트의 주요 등장인물은 시점인물이자 중심 인물인 良太와 오야카타, 그리고 오야카타의 처 ‘오키요(才清)’이다. 이 세 명 중에 국적 또는 민족이 확실히 드러나는 인물은 ‘오키요’뿐이다. 그녀는 ‘어떤 요리집’에서 데려온 ‘조선 여자’로, ‘오키요, 조선옷은 세르로 몇 야르나 필요한가, 가끔은 독특한 게 더 끌리니까’, ‘멋지군, 카우리(조선)식도 나쁘지 않네, 독특하고’라는 식으로 민족적 색채를 전면에서 드러내는 등장인물로 조형되어 있다. 그에 비해 오야카타의 국적은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선 여자’를 데려다 일부러 ‘오키요’라고 부르고 있는 점을 봐서 일본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良太는 이름으로 봐서 일본인인 듯하지만, 김윤식이 ‘일본식 이름으로 보이지만, 주인공 ‘양태’의 국적은 확실하지 않다.’⁵⁾고 지적한 대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良太라는 한자를 쓰는 이름은 거의 없다는 점, 또 오야카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키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자가 그를 조선인으로 인식할 필연성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생각하면 ‘良太’가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일 가능성은 있어도, 적어도 조선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야카타도 良太도 국적 또는 민족

⁵⁾ 김윤식, 2004, 「이중어 글쓰기의 제4형식—한설야론」,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81쪽.

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애매한 정보에 비해 작가가 있는 곳만은 구체적으로 ‘푸순’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거기에 이야기의 공간을 노천채굴장이 있는 탄광으로 설정하고 있어, 독자들이 쉽게 이를 푸순과 연결지어 읽게 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그 장소가 푸순을 가리킨다는 증거도 없다. 노천채굴장이 있다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탄광이든 배경이 될 수 있고, 사실 실재하는 장소일 필요도 없다.

2) 습작의 기법으로서의 내용과 그 변천

그렇다면 왜 작가는 구체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출신지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세계를 설정했을까. 그 이유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합숙소의 밤」이라는 텍스트에서 벗어나 「합숙소의 밤」을 전후로 한 한설야의 다른 소설들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한설야 문학의 초기단계의 습작기 작품군에 들어간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면, 「첫사랑(初恋)」(『만주일일신문』 1927.1.12~14), 「합숙소의 밤」, 「어두운 세계(暗い世界)」(『만주일일신문』 1927.2.8~13)라는 초기 일본어 삼부작과 「동경」(『조선문단』1925.5), 「주립」(『조선문단』1926.3), 「그릇된 동경」(『동아일보』1927.1.10), 「그 전후」(『조선지광』1927.5), 「뒤스걸음질」(『조선지광』1927.8), 「홍수」(『동아일보』1928.1.2~6), 「합숙소의 밤」(『조선지광』1928.1), 「인조폭포」(『조선지광』1928.2) 등 이른바 대표작인 「과도기」(『조선지광』1929.4) 이전의 작품이 습작기 작품군에 해당된다.⁶⁾ 이 습작기의 작품군은 이미 언급한 대로 ‘관능적인 탐미와 사회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인식’이라는 두 가지 경향으로 크게 나

6) 김윤식, 앞의 책, 82쪽 참고.

뉘어지는데, 그 중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은 ‘유럽 자연주의 작가들을 모방하여 거칠게 성욕을 묘사’한 특징이 있는 전자에 들어간다.

여기서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주립」을 살펴보면, 이 소설도 「합숙소의 밤」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의 옛보기가 제재이다. 소설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육체적인 욕망에 빠진 주인공 ‘경일’은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남편의 외출 후에 홀로 있는 옆방 여인을 몰래 옛보고 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경일은, 그 욕망을 옛보기를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일은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옆방 여자를 범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끓어오르는 욕망으로 도덕과 윤리의식은 마비하고, 급기야 폭력적인 수단까지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히지만, 이야기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날 밤,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등장하고, 경일의 욕망은 곧바로 ‘서리 마즌 풀넛 가치 시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돼 버리는 것.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남편’으로 상징되는 현실이다. ‘남편’은 단지 방해자일 뿐 아니라, 경일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힘이고, 도덕의 상징, 그리고 ‘본능’을 억압하는 ‘초자아’같은 존재이다. 이렇듯 「주립」은 본능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의 경향이 나타난 작품이다.

이 요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립」은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과 내용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 남자주인공이 남의 아내를 훔쳐본다는 모티프, 여자를 자기것으로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남편의 등장으로 종식된다는 전개와 결말이 모두 같다. 그에 비해 이 두 작품의 상이점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중에 발표된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이 프롤레타리아문학적 색채를 띠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맞붙은 두 방에

서 탄광의 합숙소로 된 점, 방주인들의 관계가 같은 공장의 동료에서 노동자와 오야카타로 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숙소의 밤」의 공간은 ‘지옥’과 ‘극락’이라는 이항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명확히 분할되어 있다. 「주립」의 경일은 그것을 ‘죽은 안해’를 향한 그리움과 ‘도덕’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합숙소의 밤」의 良太는 ‘맹자(猛者)’와 ‘피억압자’ 간의 ‘히로익한 투쟁’으로 인식한다. 즉, 욕망의 억압은 도덕·윤리에 의한 것에서 계급·권력관계에 의한 것으로 변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良太에게는 윤리적·도덕적인 주저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두 텍스트 간의 변화는 ‘관능적인 탐미와 사회적인 자아’, ‘부정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인식’이라는, 선행연구가 말하는 한설야 초기문학의 두 경향 간의 중첩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실에 대한 통찰과 변혁적 열망의 표현’이라는 한설야 문학을 특징짓는 성격, 즉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의 이행도 엿보인다. 한설야는 「합숙소의 밤」이라는 습작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완전히 삭제하고, 계급과 권력이라는 이념적인 가치만을 묻는, 극한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은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의 명칭이 계속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良太에게는 ‘작사랑하는 자’, ‘맹자’, ‘피억압자’, ‘일벌’, ‘눈 보양자’, ‘은닉자’라는 명칭이 붙고, 오야카타에게는 ‘방해자’, ‘대장’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그리고 오야카타의 처에게는 ‘여자’, ‘안주인’, ‘선녀’, ‘마누라’, ‘조선 여자’, ‘오키요’, ‘여왕’, ‘외로운 자’라는 명칭이 붙는데, 작품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이상할 정도로 다양한 명칭을 채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설야 자신이 이 텍스트를 습작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문학적 기법과 내용을 모색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3) 장(場)과 언어

푸순은 평톈(奉天: 현재의 瀋陽)에서 약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1905년부터 일본군에 의한 푸순 채탄소가 설치되었고, 1907년에는 만철이 설립됨과 동시에 푸순탄광의 채탄권(採炭權)이 만철에 양도되었다. 일본 세력이 이미 진출해 있던 푸순은, 중국의 다른 지방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의 지역이었다. 한설야가 이주하기 2년 전부터는 대대적인 노천채굴 개발이 진행돼 푸순지역은 나날이 확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설야는 그 곳에서 직접 탄광노동자들과 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단지 탄광노동자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설야는 푸순에 있는 동안 세 편의 일본어 단편소설을 『만주 일일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뿐 아니라 「만주」에 머물면서도 한국어로 논평을 써서 『동아일보』에 투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양심이란」⁷⁾, 「계급문학에 관하여」⁸⁾, 「프로 예술 선언」⁹⁾이 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글들은 『동아일보』가 독자를 위해 오픈한 지면에 실렸고, 이 역시 평론가로서의 습작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설야가 「만주」에 있으면서도 조선의 신문을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정력적으로 문학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어로 쓴 소설을 조선의 미디어에 투고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설야는 이 시기에 일본어로 소설을 썼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의 초기 일본어 3부작 「첫사랑」, 「합숙소의 밤」, 「어두운 세계」 중에 「합숙소의

7) 『동아일보』, 1926년 10월 23일, 제3면.

8) 『동아일보』, 1926년 10월 25일, 제3면.

9) 『동아일보』, 1926년 11월 6일, 제3면.

밤」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어 단편소설 「주립」과 유사하고, 「첫사랑」은 「산연(散戀)」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서 후에 『매일신보』에 한국어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보면 한설야는 언어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그가 ‘만주’에 가서, 당시 ‘만주’ 최대규모의 일본어신문이었던 『만주일일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소설을 발표했던 것이다. 한설야의 초기 일본어 소설은 그의 문학적 모색기에 있어서 왕성한 습작 집필활동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수법의 모색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프롤레타리아문학 「합숙소의 밤」

1) 조선문단의 상황——KAPF 제1차 방향전환

한설야는 조선에 돌아와 바로 KAPF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시기의 조선문단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전성기였다. 1922년 『신생활』 창간을 출발점으로 ‘신경향파’의 리얼리즘문학은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변하고, 조선문단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KAPF는 1925년 8월에 결성되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1차 방향전환이 있었던 1927년 이후의 일이다. 1927년 ‘우리는 무산자계급 운동의 일부인 무산자계급 예술운동으로,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관념을 철저히 배제하고, 전제적 세력과의 항쟁, 의식층 조성운동 수행을 기한다’는 신강령 하에 KAPF는 재편성되었다. ‘예술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의 적극적 참여’와 ‘과학적인 방법론과 세계관의 정립’을 내용으로 하는 방향전환을 단행하면서, KAPF는 운동조직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는 한편, 그 과정에

서 KAPF 지도부는 작가들에게 ‘당파성’의 확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즉, 현실을 넓은 시야에서 보고,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창작에 임하는 것이 KAPF 소속 작가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신경향파’ 시기의 현실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두고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 과제로 주어졌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KAPF 지도부는 신경향파 시기, 단지 생활고와 절망적 상태만을 묘사하던 것을 지양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작품 속에 그리기를 요구했다. 나아가 사회 모순에 맞서는 새로운 인간상과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을 작가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한설야는 KAPF의 이러한 흐름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갔다.

2) 첫머리에 관한 고찰——정경의 사상화, 사상의 정경화

한설야는 ‘만주’에서 귀국한지 1년이 지난 후, 『조선지광』 제75호(1928년 1월)에 「합숙소의 밤」을 한국어로 발표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 내용은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투-, 튀-」

나는 땅스짐과 몬지와 석탄젓국에 저즌「고막쥐」가튼 얼굴을 굴(堅坑) 밧그로 내밀며 크게 숨을 토했다. 점고 까란즌 굴(坑) 속의 공기에 가미(加味)되어 들어오는 기계풍구(送風機)의 바람보다 얼마나 시원스럽고 맑은 공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간만은 술에 취하는 사람 가치 나는 일어버렸든 맛의 한 곳을 차자오는 쾌감을 늦겼다. 그래도 자동차 마차 속의「팔자수염」 「터럭죽기」 들은 이 바닥의 공기를 몹시 실여하여서 마스크로 걸러(濾過) 마신다. (「합숙소의 밤」 『조선지광』 제75호, 26쪽, 이후 쪽수만 표시)

이 인용은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 첫머리이다. 일본어판이 ‘콜록...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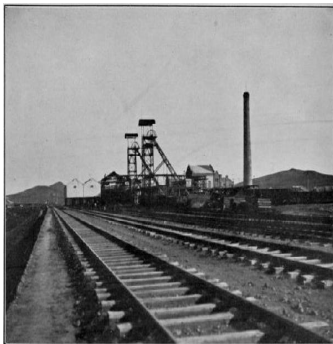
록...'이라는 소리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투-, 투々'라는, 무언가를 뱉어내는 소리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두번째 줄부터 두 텍스트의 가장 큰 상이점이 나타난다. 바로 '나'라는 시점인물이 주인공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에서는 '良太'라는 이름의 3인칭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에 비해 한국어판에서는 '나'라는 1인칭 내레이터가 주인공이다. 미리 말해 두자면,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면서 소설 속 내레이터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소설 밖의 작가 한철야와도 지극히 가까운 존재, 분신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은 '나'의 시선을 따라 탄광을 묘사하면서 시작한다. 첫 묘사는 탄광 안의 '공기'와 탄광 밖의 '공기', 그리고 '마스크로 걸러 마신' '공기'로 표현되는 계급적인 격차이다. 이 계급적 히에라르키의 상부를 차지하는 '팔자수염'이나 '터럭죽기'라는 말은 '관료'와 '자본가'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묘사는 검열을 피해 간접적으로 표현됨과 동시에 마치 입에 담지 못 할 말들을 피하는 듯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듯 소설은 첫머리에서는 계급적 입장과 그에 대한 시선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은 채탄장의 정경묘사가 이어진다.

밤이다. 탄광왕국(B시)의 찬란한 밤이다. 구시가와 신시가 사이의 호떡가튼 둥글넓적한 언덕에까지 붉은 불 푸른 불이 한량업시 만나나도 M시 방직공장의 소동에 몰려서 개々결신으로 이 공장에 처음 들어오든 날 밤에 이 불에 흠여서 무슨 야단스러운 밝은 도회거니 하엿다그러나 밤이 밝고 보니 겼어케 멧든 무서운 거리엿다. 검은 연기 중에 벗지르고 옷뚝 선 놈다란 대(臺) 우에서 겼언 쇠수레박회가 돌々々 굴며 연기에 잠긴 경사진 쇠다리로 조고만 쇠수레가 꺾도 업시 뒤미쳐/ \ 얼른/ \ 끌여 올라갔다. 삼백 년을 파 먹을지 사백 년을 파 먹을지 모른다는 땅 속의 검은 금강석을 선탄장(選炭場)으로 긱어 올니는 오만스러운 놈흔 대다 마치 넷 날 귀신이 맨 꼭지로나 덤비든 밝고도 감안 시절의 귀신의 겼寺院 갓흔

것)가치 방자스러운 늙은 대가 두홀이나 남북에 벗지르고 섰다 그러나 그 괴로운 지옥 가든 세상을 버서나 하늘나라로 사람을 지시하는 듯 하든 귀신의 뽀죽집이 위엄은 지금의 이 검은 대⁸속에 잠겨들어 가고 마지 안었는가. (26~27쪽,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은 보다 구체적인 탄광 묘사인데, 여기서는 이 작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눈에 띈다. 우선 ‘검은 연기 중에 벗지르고 우뚝선 늙다란 대’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확인해 보자. 이 ‘늙다란 대’ 위에는 ‘검은 쇠수레박회가 돌々々 굴며’, ‘경사진 쇠다리로 조고만 쇠수레가 꺾도 업시 뒤미쳐 / \ 얼른 / \ 끌여 올라갔다’고 묘사되어 있다. 푸순 탄광 개발 초기의 사진에서 【그림 1】, 【그림 2】¹¹⁾를 볼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 위에 쇠바퀴가 돌고 있는 철제 건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낸 석탄을 퍼올리는 도르래가 설치된 권양기탑(捲揚機塔)이다. 인용에서 말하는 ‘늙다란 대’는 바로 이 철탑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撫順炭坑東郷坑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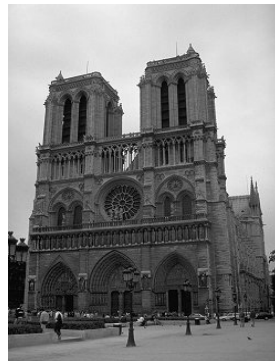


【그림 2】撫順炭坑老虎台豎坑の槽¹¹⁾

10) 동아시아의 탄광사진(東アジアの炭鉱写真) <<http://record.museum.kyushu-u.ac.jp/sekitan/>> 최중환인 2009년 10월 31일. 원전은 『筑豊石炭鉱業組合月報』 제7권 제83호(1911년).

11) 위 사이트. 원전은 『筑豊石炭鉱業組合月報』 제5권 제56호(1909년).

다음은 인용의 밑줄 부분에 주목해 보자. ‘귀신’은 지금의 의미로는 도깨비나 유행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이르지만,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서양귀신’이라고 불렸다. 밑줄 부분의 ‘그 괴로운 지옥 가튼 세상을 버서나 하늘나라로 사람을 지시하는 듯 하든 귀신의 뽀죽집’을 보면, 인용 속의 ‘귀신’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신’이다. 이러한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는 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다. 그 중에서 당시 조선이나 일본, 중국에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던 종교는 기독교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인용문에서 말하는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귀신의 집’은 교회나 성당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눅다란 대’가 ‘귀신의 뽀죽집’을 연상시킨다고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림1】 과 【그림2】 의 철탑을 보고 【그림 3】 과 【그림 4】 같은 고딕양식의 대성당을 연상했을지도 모른다. 철탑의 ‘쇠수레박휘’는 고딕건축의 대표적인 장식인 장미창[rose window]¹²⁾으로, ‘경사진 쇠다리’는 고딕건축의 3대요소 중 하나인 버팀도리[*flying buttress*]¹³⁾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샤르트르 대성당 【그림 4】 파리 노트담 대성당

12) 13~14세기 유럽의 고딕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꽃 모양의 둥근 창.

13) 고딕건축물의 측면에서 볼트의 측압을 외압으로 지탱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바친 아치형 지지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딕건축은 유럽 중세시대 종교건축물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이다. 인용의 밑줄친 부분, ‘넛날 귀신이 맨 꼭지로나 덤비는 밝고도 감안 시절’을 기독교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즉 유럽의 중세로 본다면 ‘눅다란 대’를 고딕양식의 대성당에 비유했다는 추측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인용문에서는 그 중세를 ‘밝고도 감안 시대’라는 표현을 써서 이율배반적으로 형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에는 종교가 갖는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신앙의 ‘밝음’과 ‘암흑시대’로 일컬어지는 시대적 ‘어두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귀신’이 ‘맨 꼭지’처럼 군림하던 시대에는 대성당이 높게 서서 ‘신’의 지배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귀신의 뽀죽집’의 ‘위엄’도 ‘검은 대’ 속에 잠겨들어 가’ 있다. 석탄을 계속 캐올리고 있는 ‘눅다란 대’는 탄광을 형상화하고, 석탄은 노동의 현장, 자본에 의해 노동자의 고용이 성립하는 현장으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눅다란 대’가 석탄을 얼마나 계속 퍼낼지 알 수 없지만 ‘삼백년’, ‘사백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끝날 한정된 시간이다. 중세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근대의 자본주의사회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까지 정경묘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인용은 종교가 지배하던 중세에서 자본이 지배하는 근대로의 역사적 추이와, 종교도 자본주의도 인간사회 위에 ‘오만스럽게’ 군림하는 억압의 장치였다는 점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 ‘귀신의 뽀죽집’과 ‘눅다란 대’는 그 모양뿐 아니라 성질도 유사한 것이다.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는 인류의 전진은 신의 계획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었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기초이념이 되는 사적 유물론을 제창했다. 역사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모순

눈물이다. 나는 부지중 눈물을 금벽그렸다 (27쪽)

인용에는 복자(伏字)가 많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무서운 거리’가 ‘마지막 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묘사된 상황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괴롭고 힘든 피억압상황은 낙원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극히 희망에 찬 힘찬 문장이다.

소설이 공간적 배경의 정경묘사로 시작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지만, 이 소설은 그 정경묘사를 통해서, 작가의 사상적인 배경, 이념까지도 선명하게 내비치고 심지어는 결론의 방향성까지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경묘사가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가 시작된다.

3) ‘늙은 표본’의 이야기

탄광노동을 끝낸 노동자들은 합숙소 방으로 돌아온다. 그때 합숙소 밖에서 어느 노인을 혼내는 감독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하지 않고 공짜밥을 먹고는 도망가는 노인이 기차역에서 잡혀 끌려온 것이다. 노인의 뺨을 때리며 추궁하는 감독의 태도에 격분한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지만 감독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는 노인을 방에 들이고 사정을 묻고, 그러는 사이에 합숙소의 노동사정을 회상하는 주인공의 내러티브가 삽입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출신 ‘XX인’의 감독하에 50명 단위로 구성된 작업반에 함경도 출신 노인이 들어왔다. 현상채굴을 노리고, 수하의 노동자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충하기 위해 감독은 그 노인이 도움이 안 되는 늙은 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것이다. 그러나 평위상(馮玉祥)의 귀환에 관한 소문으로 ‘만주’의 정치 정세는 불안정하게 되고, ‘쿨리’들이 대거로 탄광에 몰려든 덕분에 노인은 일을 얻지 못하게 된다.

감독에게 혼나고 추운 문밖에 서 있는 노인을 방에 들인 ‘나’는 망연자실해 있는 노인에게 “그런데 엇더케 된 일이오?”라고 묻는다. 노인이 고향인 함경도로 돌아가려다 정류장에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여비를 건넨다. 그리고 함께 ‘만주’로 건너온 노인의 아들들이 무언가의 사건에 말려들어 ‘원통하게’죽은 일이나 이전에 살던 ‘xx’에는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돈 벌러 나온 일 등을 노인으로부터 듣는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보며 “‘하늘’이 오늘날 누구의 손에 잇는지 몰은’ ‘무지’한 노인을 불쌍히 생각하며 그를 고향으로 떠나보낸다. 그리고 노인의 인생편력을 ‘그가 주고 간 산 교훈과 암시’라 생각하고, 함숙소 동무들에게 이렇게 외치며 소설은 끝난다.

「xxxxxxxxxxxxxxxxx 아니면xx이 잇슬뿐이다」

나는 이 귀에 길이 나도록 외인 소리—— 일과와 가치 웨친 소리를 다시 끄내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의 새 일과를 나는 부르지졌다

「…………그 늙은이를 보지 안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산 표본이다…………」

나는 「늙은 표본」이 주고간 가지가지의 사실을 곧 오늘밤의 교재로 하였다. (4행 생략) (34쪽)

이 인용도 복자가 많고 마지막은 생략이 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나’의 강한 계급투쟁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드러난다. 그야말로 첫 머리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성은 ‘과학적인 방법론과 세계관의 정립’과 ‘예술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재편성 이후의 KAFP의 방향성을 따르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적 유물론의 발전사관을 전제로 하여 소설의 마지막은 정치적인 행동, 공산주의혁명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한 투쟁을 호소하

는 결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배/피지배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이항대립적으로 그리고, 그 모순에 맞서는 새로운 인간상과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학적 완성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소설은 KAFP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두 언어로 발표된 두 편의 「합숙소의 밤」에는, 한설야가 문학적 모색기를 거쳐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다음은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 텍스트 내부에 쓰여진 내용을 텍스트 외부의 사실과 대응시키는 작업을 통해, 「합숙소의 밤」에 나타난 ‘만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민족과 제국을 넘는 장, ‘만주’

1) ‘오백명’-‘만주’의 조선인 노동자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에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오야카타와 그의 조선인 처, 그리고 역시 일본인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정체는 알 수 없는 주인공 ‘良太’ 등이 등장한다. 그러면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국적 또는 민족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

어저게가 령하 삼십 몇도랏는데 오늘도 그 보다 못 하지 안타 이 만주에는 삼십 몇도라는 추이가 결코 보기 드문 습튼 손님이 아니다그러나 이 손님과 알심있게 딱부디치는 폭은 아마 오백명 우리 떼가 제일일 것이다. 겨울 돈버리로 농촌에서 게바라드는 지나 「쿠리」는 그래도 웬만하면 써어진 양피조각이나마 걸고 다닌다 불상한 목으로는 만주에서도 우리가 제일 첫재일 것이다 (23쪽)

‘만주’의 ‘B시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탄항 노동자가 오만명하고도 훨씬 더 되었다’(29-30쪽). 대부분은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탄광에 몰려든 중국인 ‘쿨리’들이었다. 그러나 위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자신을 ‘오백명 우리떼’에 넣고 있다. 더욱이 ‘우리떼’는 ‘지나인 「쿠리」’들 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기술을 보면, ‘나’가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 이주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탄광 구석에 「실직한 내지인은 속히 탄광인사상담부로 올라. 날삭 일원 이상의 일터를 소개함」이라는 게시가 붙었을 때도 처음에는 희망을 품지만 ‘그것은 압해다 「국민」이라는 껍을 단 사람만 해당된다’고 포기하는 장면에서도 ‘일본인’이지만 완전한 일본 ‘국민’은 아닌 식민지조선 출신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와 조선 함경도출신 노인과 대화에서도 ‘나’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주’에 농업 종사자 이외의 조선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존재했는가. 그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입수할 수 없었지만, 1927년 1월 26일 『만주일일신문』에 「선인조사(鮮人調査)」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푸순 경찰에서는 조선인민회에 대해 푸순지방 일대에 산재하는 조선인의 상태를 조사할 것을 명했는데 이는 최근 푸순에 오는 조선인 중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생활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생활상태를 민회로서 지실(知悉)해 두는 편이 좋다는 데에서 조사하게 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1927년 1월 26일)

이 기사에서 1927년 이전부터 이미 탄광도시 푸순에는 조선인이 상당수 이주해 살고 있었고, 조선인 민회도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업이 아니라 광업이 발달한 지역에, 조사와 대책을 요할 정도의 조선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만주」에 있었던 조선인이 농업종사자 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단계에서 그들의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1920년대 후반 푸순 탄광에 조선인 탄광 노동자가 있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1925년의 「푸순탄광 재적종업원수」를 보면, 총계 28,043명 중 일본인이 2,795명, 중국인이 25,248명으로 되어 있는데¹⁴⁾,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사원수이고, 임시직이나 청부직 등 비정규고용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한기 별이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2) 탄광왕국 B시

이야기의 무대는 「만주」의 「탄광왕국(B시)」이다.

밤이다. 탄광왕국(B시)의 찬란한 밤이다. 구시가와 신시가 사이의 호떡가튼 둥글넓적한 언덕에까지 붉은 불 푸른 불이 한량 없시 만타. (26쪽)

「양질의 석탄을 대량으로 매장한 동아시아 최대 탄광」¹⁵⁾인 푸순이 「탄광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B시」가 푸순의 일본식음 「부쥘(ふじゅん)」에서 온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일찍이 한설야는 「어두운 세계」라는, 역시 「만주」에 있던 시절에 『만주일일신문』에 발표한 소설에서, 푸순의 구시가와 신시가에 주목하고, 「새로운 거리가 매일 확장되는 반면, 옛 거리는 몰락해 간다」(1927년 2월 9일)고 묘사

14) 松村高夫, 2007, 『滿州撫順炭鉱における労働実態』, 『日本帝国主義下の植民地労働史』, 不二出版, 236쪽.

15) 앞의 책, 223쪽.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구시가와 신시가 사이’의 언덕에 주목하여, ‘호떡 가튼 등글넙적한’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언덕은 푸순시가 남부에 위치한 평딩산(平頂山)일 것이다. 평딩산은 이름 그대로 산꼭대기가 평평한 산으로, 훗날 ‘평딩산 사건’(1934년 9월 16일)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탄광왕국(B시)’이 푸순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풍경묘사뿐이 아니다. 노동환경과 고용형태 역시 당시의 푸순의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 합숙소에는 모다 한 사십 명 가량 잇섯는데 적어도 오십 명은 되어야 감독은 굴속의 어느만한 구역을 도맡아 가지고 제가 꼭지로 일을 식혀서 댄통 큰 돈을 어들 수 있다. 말방아의 말가치 부하 노동자를 좇두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썩른 시간에 일을 맞치면 감독은 그만치 별게 된다

그리자 년말이 갓가와 오니까 현상채굴(懸賞採掘)이라는 꽤가 붓혔다. (중략) 그리하여 얻는 「우깨오이」를 맛들 최저한도의 오십 명이라도 주어 모이라고 눈이 벼엇튼 판이라 아무리 늑고 약한 놈이라도 주마가편격으로 채질하야 노동의 밀도(密度)를 짜내면 안될 일이 업스리라고 그는 톡스히 제 숨시에 신념을 두어가지고는 현상채굴의 준비로 그 늑은이도 집어너엇든 것이다. (28-29쪽)

이상은 텍스트의 인용인데, 다음에 오는 푸순탄광의 노동실태에 관한 마쓰무라 다카오(松村高夫)의 연구와 비교해서 읽으면 매우 흥미롭다. 푸순탄광에는 ‘파두제(把頭制)’라는 노동 총괄방식이 존재했다. ‘파두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파두란 인부 우두머리를 가리키는데 푸순탄광에서는 개발 당초의 청부인이 그 기원으로 일컬어진다 푸순탄광의 파두제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이미 세 단계를 거쳐 있었다 (중략) 제2단계인 직할제는 (중략) 1920년대 중반 채탄과정에서 지배적 형태가 되었다 직할제에서 탄광측이 직

접 광부에게 임금을 지불하였으나 파두를 완전히 불식하지는 않았다 파두는 대파두와 소파두로 나뉘었는데 소파두는 채광부 50명을 하나의 편성단위로 하여 그 작업을 직할, 감독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소파두 몇명의 위에 존재하는 대파두가 소파두와 그 밑의 광부를 통괄하는 방식은 아직 남아 있었다.¹⁶⁾

계속해서, 2단계 직할제에서는 파두가 ‘자유롭게’ 중간착취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대신에

파두는 탄광측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수당’을 받았는데 ‘수당’은 고정급이 아니라 수하 탄광부의 총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총임금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여 성과급 지불 채광부상용부의 노동강화의 계기가 되었다.¹⁷⁾

라고 마쓰무라는 논하고 있다. 「합숙소의 밤」의 인용과 선행연구의 인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해 보면, 작중 ‘감독’은 ‘청부인’이 기원인 ‘소파두’이고, ‘50명을 하나의 편성단위’로 하여 ‘수하 노동자’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두’는 ‘어느만한 구역을 도맡아 가지고’, ‘채광부(상용부)의 노동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댄통 큰 돈’ 즉 ‘많은 액수의 ‘수당’을 손에 넣기 위해 ‘부하 노동자를 좇두드’리고 있는 중간착취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한설야가 푸순에 머물던 ‘1920년대 중반’ 푸순탄광의 노동실태이다.

그런데 한설야의 「합숙소의 밤」에 나타나는 억압/피억압=착취/피착취의 이항대립구조는 오로지 감독/노동자 사이에서 성립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930년대에 들어가서 ‘파두는 탄광부의 파업을 선동하여 대형파업 발발 직전까지 가는 사태에 이르렀다.’¹⁸⁾ 현장의 노동 실태는 한설야가 파악했던

16) 앞의 책, 238쪽.

17) 앞의 책.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3) M시 방직공장 소동

소설 첫머리에서 이어지는 ‘탄광왕국(B시)’의 정경묘사는 다음과 같다.

나도 M시 방직공장의 소동에 몰려서 개개 걸신으로 이 공장에 처음 들어
오든 날 밤에 이 불에 흠여서 무슨 야단스러운 밝은 도회거니 하였다(26쪽)

이 시기 ‘방직공장’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당시 5.30운동을 비롯해, 중국에서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 동맹파업의 주요 무대가 일본계 방직공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방직공장’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5.30 운동은 1925년 5월 30일 상하이에서 일어난 중국의 민족운동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방직공장에서의 동맹파업으로 시작돼, 점차 중국 전토로 확산된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5.4운동(1919년)에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부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 영향은 ‘만주’에까지 미쳐, 사건 후 2, 3년이 지나서도 ‘상하이 방직공장 소동’이라는 말을 신문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M시가 어디인지 확정하기는 힘들다. 당시 ‘만주’를 비롯해 중국에 있었던 일본인 경영 방직공장이 있던 곳 중에 일본어식 발음이나 중국어식 발음, 한국어식 발음이 M으로 시작되는 도시는 없었다.

『쇼와3년 만몽년감(昭和三年滿蒙年鑑)』을 보면, 「노동사정」의 ‘노동단체’ 항목에 ‘공산당계의 남방(南方) 노동 제(諸)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중략) 15년(大正15년, 1926년:인용자주) 6월 만주방직회사 직공 동맹태업 때 이를 원조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공안에 해를 입히었다’¹⁹⁾고 기록되어 있다. ‘남방

18) 앞의 책.

공산당의 책동' 항목에는 1926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다롄(大連) 저우수이(周水子)에 있는 '만주방직 주식회사'에서의 동맹태업 사건에 관련한 남방공산당의 활동과 잉커우(營口)→다롄(大連)→푸순(撫順) →평톈(奉天)을 오고가는 동향까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선은 방직·모직회사, 제철회사, 탄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당시의 노동쟁의, 특히 방직공장의 태업이 공산당의 지도하에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공작원(オルグ)의 공장을 기점으로 한 이동과 야학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에다 겐지(江田憲治)의 선행연구²⁰⁾에 따르면 '남방공산당'이란 1923년 12월, 만철 기계공이 조직한 선허커우 공장 화인공학회(沙河口工場華人工學會) 성립 후 얼마 안 돼서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파견된 공작원에 의해 다롄중화공학회로 개조되고, 공산당의 원조를 받았던 조직을 말한다. 그 다롄중화공학회의 지도를 따라 후쿠시마방직(福島紡績)의 파업은 1926년 4월에서 6월에 걸쳐 일어났고, 90일간의 투쟁 끝에 노동자들의 요구 중 일부가 관철되었다. 상하이의 움직임에 '만주'가 호응하는 반제국주의운동의 연쇄작용은 이렇듯 공산당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

이 반제국주의 운동 네트워크는 「합숙소의 밤」에 나오는 '나'가 'M시 방직회사'에서 '탄광왕국(B시)'까지 이동한 것과 관련지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과'를 외치고, '늪은 표본'을 '오늘밤의 교재'로 하는 등의 행동으로 유추해 보아도, '나'가 노동쟁의를 일으키기 위해, '교재'를 이용한 야학교육을 여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당조직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소설 텍스트에는 제국의 지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제국의

¹⁹⁾ 大連中日文化協會, 1929, 『昭和三年版 滿蒙年鑑』, 654쪽.

²⁰⁾ 江田憲治, 2002, 「抵抗」江田憲治、解学詩、松村高夫『滿鉄労働史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418쪽.

국경선이나 민족의 경계를 횡단하는 형태로서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에 관한 궤적이 시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20년대 조선인이 중국공산당 당원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항일무장항쟁 단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인 중국공산당원의 예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M시 방적공장 소동’은 반자본주의적 성격과 반제국주의적 성격 양쪽을 모두 지니고 있는 노동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합숙소의 밤」의 주인공 ‘나’는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가가 자신을 투영하여 혁명적인 ‘새로운 인간상’으로 주인공을 조형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방향성에 한설야 자신이 공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방향성은 한설야 개인만의 정치적 지향이 아님은 당시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1926년 2월 12일, 재만농민동맹 기관지인 『농보(農報)』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이다.

지금 한국민족운동은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하에서 신식노예로서 열가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군중이 되었고 노동의 기회를 빼앗겨 일종의 실업자가 된 한국민족은 가장 참혹한 압박과 기아에 신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의 민족운동은 노동운동으로 진전하고 노동운동은 민족운동의 방향으로 인도되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최종까지 병행될 수 있으며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혁명적인 위대한 전선을 정돈할 것이며 가장 승리적으로 과장적인 정확한 성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 기사에서는 1924년 11월에 결성된 한족노동당의 후신인 재만농민동맹이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21) 황민호, 2005,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신서원, 89쪽에서 재인용.

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0년 9월의 제1차 동양제민족대회와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조선의 독립운동이 코민테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었던 데에 기인한다.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에 나타나는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방향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의 구체적인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자.

4) 군벌과 소련의 접점, 평위상(馮玉祥)

소설 속 ‘탄광왕국(B시)’의 노동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에는 ‘「풍옥상이 노국으로부터 다시 몽고 감숙성에 들어와서 권세를 크게 회복하여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등장한다. 이 소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주’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쿨리’들이 대거 탄광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요새스날 새에 중국싸움 소문이 자출 때가 업지만 이 소문은 소문중에도 놀라운 소문이었다. 갯닥하면 동삼정이 뒤집히는 무렵이라 이런 소문이 어드운 굴속에까지 착 퍼졌다. 우리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 듯기도 하였고 외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싸움이 우리 로동자에게 주는 영향이 컷든 까닭이다.

만주에서는 된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길에 나바는 「쿨리」들은 잘 못하면 붓들여 전장으로 끌여나군 하였다 인력거군도 손님을 못태이고 우둔하게 돌다가는 어느새 덜미를 집히가군 하였다. 그리하여 흉々해난 사람들은 작고 어드운 탄항으로 몰려들어 혈짜을 밧고도 곶삭 / \ 부즈런히 일을 하였다. (중략)

풍옥상이 쳐들어온다는 바람에 탄항 로동자는 벗석 늘었다 봉표(동삼성 통화)는 점々 가치가 시세가 떠러져서 지나인의 생활은 그만치 위험이 심하여지고 또 억울히 잡혀서 피비린 그곳으로 끌려가는 군도 늘어갔다 함으로 그들은 이 어드운 탄항을 두문동 안 가치나 생각하고 모여들었다 (29쪽)

중국 군벌과 제국(서양열강과 일본제국) 사이의 길항(拮抗)과 영합, 중국 공산당과 군벌의 길항과 영합, 그리고 소련까지 가세하여 전개되는 당시의 착종된 파워 폴리틱스의 맥락 안에서 이 인용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가운데 평위상(馮玉祥)이 있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에 걸쳐, 중국 전토가 군벌 세력에 의한 내란에 휩싸이고, 각각의 군벌은 열강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립과 결탁을 반복하며 세력 확장을 노렸다.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만주’를 지배한 것은 동북군벌 평톈(奉天)과 장쥘린(張作霖) 정권이었고, 광대한 ‘만주’ 땅과 일본의 힘을 배후로 장쥘린은 중앙무대 베이징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었다.

1924년 제2차 봉직전쟁 때에 평위상이 베이징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1926년에는 ‘반공=반국민당=반평위상’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우페이푸(吳佩孚)와 장쥘린 사이에 동맹이 맺어진다. 張·吳의 ‘연합공동토풍(連合共同討馮)’은 평위상의 국민군을 즈리(直隸), 허난(河南)에서 축출하고, 1926년 말에는 장쥘린이 베이징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그 결과 평위상은 1926년 3월에 소련으로 도망치고, 같은 해 9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다시 중국으로 향하는데, 소련의 요청으로 외몽고 방위를 위해 오르도스까지 원정 갔다가 귀국하게 된다. 여기서 「합숙소의 밤」의 시간적 배경을 확인하면, 평위상이 외몽고 오르도스에 있었던 1926년 9월 이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²⁾

한편, 당시의 중국 공산당은 ‘반군벌=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의 노선을 선명히 하고 있었다. 이는 장쥘린·우페이푸 군벌이 취하던 ‘반공=반국민당=반평위상’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임은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22) 중국 군벌시대에 관한 내용은 来新夏編, 1989, 『中国軍閥の興亡——その形成発展と盛衰滅亡』, 光風社出版, 190-250쪽. 水野明, 1995, 『東北軍閥政權の研究——張作霖·張学良の対外抵抗と对内統一の奇跡』, 国書刊行会, 97-102쪽. 鄭健宰, 1997, 『中国の軍閥』, 国書刊行会 등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은 5.30사건을 기로, 전중국에 폭발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이 이 5.30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이다.

이상이 앞선 인용의 정치적 배경이다. 텍스트의 표면이 나타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전란 속에서 괴로워하는 민중(‘콜리’)들의 모습과 그러한 싸움이 결코 그들 민중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피해 탄광에 몰려들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들은 이 어드운 탄항을 두문동 안 가치나 생각하고 모여들었다’는 묘사에서 전쟁을 기피하여 탄광에 모여드는 중국의 하층민중을 ‘두문동’에 들어가 마지막까지 신왕조를 따르지 않았던 고려왕조의 충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 것은 장췌린 군벌이고, 그 배후에는 일본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엇이 ‘신왕조’를 상징하는지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용문의 밑줄 친 ‘갯닥하면 동삼정이 뒤집히는 무렵’이라는 부분에는, 평위상의 귀환에 따른 동북군벌 평토포의 패배와 장췌린 정권의 붕괴에 대한 예상이 전제된다. 평위상은 ‘붉은 크리스천 제너럴’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리스천이지만 친소련적 성향의 인물이었다. 그 자신은 공산당원이 아니라 국민당원이었지만 후에는 반-장제스를 내건 이례적인 정치성을 갖는 군벌이다. 그에 반해 장췌린은 당초부터 일본의 지지를 이용하여 정치기반을 다지고, 강경한 반공노선을 취했기에 영미를 비롯한 열강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실제로는 장췌린은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주’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소련과는 여러 이해관계에서 대립하였으며 반공정책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평위상도 실제로는 공산주의에 경도된 것이 아니라 장췌린을 견제하고 스스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원조를 바라며 소련에 접근했을지도 모

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장쥘린과 평위상의 대결은 그대로 ‘반평위상=반국민당=반공산주의’ 대 ‘반장쥘린=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의 구도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구도가 이 텍스트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평위상의 승리를 전제로 하는 사고에는, 미약하게나마 ‘반장쥘린=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희구하는 내러티브의 가치판단이 읽힌다. 이는 인용의 밑줄 친 ‘그것은 싸움이 우리 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이 컸든 까닭이다’라는 부분에, 단지 ‘쿠리’가 몰려와 ‘우리떼’의 일감이 줄어든다는 표면적인 위기감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즉, 민족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전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는 다음의 인용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살라는 욕심은 그들도 모든 사람들과 꼭 같했지만 대부분 아직 살도리를 찾지 못 하였다. 곱삭 / \ 일하면 장래 엇더한 신세가 돌아올 것을 몰랐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금년에는 벌써 이 만주에서 잘살아갈 첫길을 찾는 쟁의가 여들 군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는 뒷꾼이 질었다. 일을 저글너 노코는 농촌에서 유々히 버티고들 있다. (29쪽)

정치적인 상황 설명(‘중국싸움 소문’)은 노동상황의 묘사(‘흥々해난 사람들은 작고 어드운 탄항으로 몰려들어 혈씩을 밧고도 곱삭 / \ 부즈런히 일을 하였다’)로 바뀌고, 다시 위 인용에서는 인간의 본능과 권리(‘살라는 욕심’)에서 노동운동(‘잘살아갈 첫길을 찾는 쟁의’)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정치상황에 기인하는 사회 분위기의 묘사(‘풍옥상이 처들어온다는 바람에 탄항 로동자는 벳석 늘었다’)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서술의 전개에서 보면 장쥘린 대 평위상의 전쟁이 노동운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이 텍스트가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군벌과 제국 사이의 길항과 영합, 중국공산당과 군벌의 대립, 중국공산당과 소련(또는 코민테른)의 연대, 등등의 복잡한 관계양상 속에서, 평위상은 친소련, 반제국 군벌세력으로 위치지을 수 있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텍스트 분석의 결과, 평위상의 ‘반장쥘린=반제국주의=반공산주의’라는 정치적 노선에 공명하여 평위상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합숙소의 밤」 텍스트 속에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간도출병과 간도참변

지금까지 살펴본 「합숙소의 밤」 속의 사건과 사실(‘만주’의 조선인노동자, 탄광왕국B시, M시 방직공장 소동, 평위상의 귀환)을 정리하자면, 이들은 모두 일정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두 공산주의나 노동운동과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먼저 말해 두자면, 지금부터 볼 사건은 그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 사건은 ‘나’와 노인의 대화중에 등장한다. 함께 ‘만주’에 온 노인의 아들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원통히 죽’은 것이다. 그 후 화제를 바꾸듯 이어지는 노인의 질문은, 사실은 노인 자식들이 휘말린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여보……당신은 엇더케 살아났소 ……이 만주에 온지가 오래요」

「오래지요 금년이 사년인가 오년인가 돼요」

「글세 그럼 그러차……××등지에 못 가봤요……당신네는 모르리다. 몰느지요 ……하늘과 땅이 알 뿐이지요……하……」

늙은이는 두번째 땅이 꺼질 드시 긴 한숨을 토했다 나는 잘 짐작할 수가 잇섯다. ×× 중에도 가장 ××××의 자취가 꿈엔들 이칠 것이냐

「이 늙은 놈만 남고……허, 기막히는 일이지요 애야 조심하야 댕기오…… 불땡이 속을 댕기는 셈입너니」 (33쪽)

지금까지 검토해 온 사실을 통해, 작품 속 세계와 실제의 시간을 대응시켜 보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926년 겨울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주인공 ‘나’가 ‘만주’에 온 것이 그 4~5년 전인, 대략 1922년 봄에서 여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화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은 ‘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일이지만, ‘나’가 현장을 보거나 생생한 소식을 접하지는 못한 일이고, ‘나’가 ‘만주’에 건너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짐작된다. 밑줄 친 ‘××’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1922년 이전 ‘××’에서는 노인 한 명만이 살아남은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유명한 사건으로, 1920년에 있었던 일본군의 간도출병과 훈춘(琿春)사건, 간도참변 등의 일련의 사건을 상기할 수 있다. 1919년 3월, 전조선과 한반도 밖의 조선동포가 호응하여 봉기한 3.1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하여, 간도지방에 반거(蟠踞)하고 있던 독립투쟁 세력은 무장항쟁을 전개해 갔다. 1920년에 들어서는 조직적인 무장항쟁이 1월, 3월, 5월, 6월로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무장항일단과 일본군은 두만강을 넘나드는 공격과 추격전을 벌였는데, 일본군은 습격해 온 집단의 성격이 파악되기도 전에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5일 후에는 내각회의를 통해 간도출병을 결정해, 일본군을 중국영토 내로 침입시킨다. 이것이 ‘간도출병’인데, 그 대의명분은 ‘훈춘 및 간도지방에 있는 제국 신민을 보호하고, 해당 지방의 불령선인을 일소하여 제국과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있고, 국가 자위 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군의 ‘토벌’은 보복의 성격이 강했고, ‘불령선인’ 즉, 독립군뿐 아니라, 간도지역의 조선인 양민까지도 학살하기에 이른다. 이 대규모 ‘토벌’ 작전에 의한 간도지역에서의 조선인 박해·압박 사건이 이른바 ‘간도참변’이다. 「합숙소의 밤」에 등장하는 노인이 경험한 ‘어떤 사건’이란,

분명 이 간도참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자식들은 그 사건에 휘말려 ‘토벌’된 것이다.

간도지방에서 전개된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토벌’은 ‘만주’에서의 무장 항일투쟁 단체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민족주의계열 독립운동 세력 전체에 커다란 좌절감을 주었다. 한반도 내에서의 3.1운동 실패와 봉오동전투→훈춘사건→간도출병→청산리전투→간도참변으로 이어지는 ‘만주’에서의 무장 독립 투쟁과 그 실패는, 1920년대 중반 조선독립운동의 흐름을 바꾸게 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계열 단체의 대표자들은 민족 부르주아지라 규정하고, 실패는 계급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후 새롭게 대두한 사회주의·공산주의계열의 민족·계급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 또는 민중이 혁명을 주도한다는 데에서, 전례의 한계를 넘어선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구심력을 발휘하였다.

상술한 바를 바탕으로 소설의 결말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늙은이를 보지 안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산 표본이다.....」/ 나는 「늙은 표본」이 주고 간 가지가지의 사실을 곳 오늘 밤의 교재로 하였다’는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은, 민족주의에 의한 독립운동의 결과, ‘만주’에 있는 조선의 약자들은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에 대한 비판, 또는 반성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민족운동의 한계를 ‘표본’으로 하여, ‘우리’는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혁명에 의한 계급적·민족적 해방을 달성한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명백해진 것은 민족과 국가, 제국의 경계선을 넘어서 연결되는 반민족주의·반자본주의의 움직임이었다. 이는 또한 계급투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조선의 독립까지도 목표로 한 결의였다. 그리고 그 투쟁이 전개되는 ‘마지막 거리’는 ‘만주’의 탄광촌인 것이다.

5.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 ‘만주’와 조선 사이

한설야가 ‘만주’에 있으면서 조선의 신문에 몇 편의 평론을 투고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 평론들에서 한설야는 프롤레타리아문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쓰고 있는데, 문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26년 10월 25일 『동아일보』 3면에 실린 「階級文學에 관하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문예는 표현이나 묘사형식에 있어서서는 사회학이나 다른 과학과는 판연히 다른 것이지만 그 본연의 사명은 정의와 진리를 주창하여 사회와 인생을 지도계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더욱 급일과 갖흔 계급적 대립을 갖게 인식하는 예술가로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명백히 관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옛갯던 나는 계급문학으로의 예술을 격절히 창도하는 자이다. 나는 오늘날 사회의식 계급의식의 각성을 가진 사람의 혀와 붓을 간절히 바라고 잇는 커다란 민중이 엄연히 존재한 것을 곱히 인식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절절한 자각 및해서 계급문학으로의 프로작품을 내여주기를 바란다.

이 평론에서 한설야는, 문예의 사명은 ‘정의와 진리를 주창하고, 사회와 인생을 지도 계발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계급적인 대립을 갖게 인식하는 예술가’, ‘사회적 계급의식의 각성을 가진’ 작가는 ‘이 사실’ 즉, ‘계급적 대립’을 냉정히 바라보고 그려내는 ‘계급문학’(프롤레타리아문학)을 써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목표는 ‘커다란 민중’을 ‘지도 계발’하

는 데에 있다. 여기서 ‘커다란 민중’이란 ‘계급적 대립’에서 하위에 속하고, 스스로의 표현수단(‘혀와 붓’)을 갖지 못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한설야 문학활동 초기의 문학관인 것이다.

그러나 이 논평을 전후하여 집필된 소설은 아직 ‘커다란 민중’을 ‘지도 계발’하여 각성시킬 정도는 되지 않았다.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을 보면 그 이전의 소설에 비해,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간의 관계, 주인공의 의식 등이 계급간의 대립을 나타내도록 변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습작이다. 그 작품에서 한설야가 시도한 것은 ‘내용과 사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표현과 묘사형식’을 갈고 닦는 훈련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고 같은 제목으로 발표된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은 계급의식과 ‘당파성’이라는 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서 ‘내용과 사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작가 자신의 각성과 성장뿐 아니라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조선문단의 변화, 즉 KAPF의 제1차 방향전환이라는 문단적 상황이 배후에 있다. 또한 정치·사회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조선노동자총동맹의 결성과 영흥흑연탄광의 태업을 비롯한 조선 각지에서의 노동쟁의의 조직화 등이 1927년에 일어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과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 사이에는 이상과 같은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서의 ‘내용과 사상’의 변화를 우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표현언어와 발표 미디어의 변화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어판 「합숙소의 밤」에서는 표현언어도 발표 미디어도, 그리고 ‘만주’라는 제재도 작가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표현언어인 일본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창작의욕의

한 발현 형식²³⁾, ‘도구로써의 성격’²⁴⁾이라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만주일일신문』이라는 표현 미디어도 그 미디어의 성격에서 특별한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 의미가 있다면 이미 지적한 대로, 당시의 ‘만주’ 최대 규모의 일본어신문이었다는 점과 한설야가 살던 푸순에서도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은 『조선지광』이라는 KAPF의 준기관지에 발표되었고, 독자층은 주요신문처럼 일반대중이 아니라, 애초에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다. 표현언어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뀌어, ‘지도 계발’의 대상이 되는 독자(조선의 ‘큰 민중’)에 더 밀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만주’에 대한 묘사방법의 변화이다. 공간적인 배경은 같은 ‘만주’의 탄광촌으로 하면서도 일본어판에서는 그곳이 ‘만주’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주’라는 토포스가 갖는 의미는 희박했다. 그에 반해 한국어판에서 ‘만주’의 ‘탄광왕국 B시’는 조선인 탄광노동자가 파두제라는 이중착취의 고용제도하의 일본인 감독 밑에서 일하는 억압/피억압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또한 ‘만주’는 5.30사건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토에 퍼진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운동이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그 속에서 조선인(‘나’)이 지도적 위치를 점해서 활동하는 장이었다. 그리고 장쥘린과 평위상이 각각 일본과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대결하는 전장이었고, ‘불령선인’의 무장독립항쟁과 일본제국군의 ‘토벌’이 펼쳐지는 장이었다. 한설야는 이러한 ‘만주’에서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의 연대를 한국어판 「합숙소의 밤」 속에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3) 김윤식, 앞의 책, 26쪽.

24) 서경석, 2003.12, 「카프작가 일본어소설연구」, 『우리말글』29, 377쪽.

6. 맺으며

본고에서는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 한설야의 개인적 체험, 문단적 상황, 그리고 사회·정치적인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두 개의 「합숙소의 밤」 텍스트를 고찰하였다. 대략적인 정리는 앞절에서 하였으므로 반복하지는 않겠다. 단, 한 가지 강조해 둔다면, 1927년에 발표된 일본어판에서 「만주」는 소박한 문학적 모티프에 지나지 않았지만, 1928년에 발표된 한국어판에서 「만주」는, 민족·계급투쟁의 장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주」는 다양한 힘이 모여 길항·영합하면서 교차하고, 다양한 전쟁과 전투가 전개되는 「초국가적 공간」이기 때문에야말로 조선에서는 표현·실현할 수 없는 탈국가·탈민족적인 연대, 인터내셔널한 프롤레타리아트(또는 피억압민족의 민중)의 단결과 혁명을 외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힘이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만주」라는 토포스는 한설야에게 「만주」를 적극적으로 그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과 동시에, 조선을 배경으로는 그릴 수 없는, 정치적으로 제약된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새로운 문학을 추구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전환기에, 「만주」가 일본제국의 팽창하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안티테제로 그려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곳은 아직 「만주국」이 성립하지 않은 「초국가적 공간」으로서의 「만주」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강진호, 2008, 『그들의 문학과 생애——한설야, 한길사』
- 김윤식, 2004, 「이중어 글쓰기의 제4형식——한설야론」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大連中日文化協會, 1929, 『昭和三年版 滿蒙年鑑』
- 松村高夫, 2007, 「滿州撫順炭鉱における労働実態」 『日本帝国主義下の植民地労働史』, 不二出版
- 水野明, 1995, 『東北軍閥政權の研究——張作霖・張学良の対外抵抗と対内統一の奇跡』, 国書刊行会
- 来新夏編, 岩崎富久男訳, 1989, 『中国軍閥の興亡——その形成発展と盛衰滅亡』, 光風社出版
- 李相哲, 2000, 『滿州における日本人経営新聞の歴史』, 凱風社
- 서경석, 2003.12, 「카프작가 일본어소설연구 『우리말글』 29
- 江田憲治, 2002, 「抵抗」 江田憲治 `解学詩` 松村高夫『滿鉄労働史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 鄭健宰, 1997, 『中国の軍閥』, 国書刊行会
- 한설야, 1926.10.25, 「계급문학에 관하여」 『동아일보』
- 황민호, 2005,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신서원』 『東アジアの炭鉱写真』 <<http://record.museum.kyushu-u.ac.jp/sekitan/>>
- 『서울 육백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

■ 日文抄録 ■

二つの「合宿所の夜」と「満洲」

「合宿所の夜」は朝鮮の代表的なプロレタリア文学者・理論家である韓雪野の初期作品で、『満洲日日新』[1927年1月26日～27日]に日本語で発表されたテキストと『朝鮮之光』[1928年1月]に韓国語で発表されたテキストがある。文学習作期に自然主義文学を模倣して創作した日本語版「合宿所の夜」は、覗き見をする男を主人公に、荒々しい性欲を描いた自然主義系列の小説である。それに対し、その一年後に同じ題目で闘争意識を前面に出して発表した韓国語版「合宿所の夜」は、「満洲」のB市炭鉱の朝鮮人坑夫たちの劣悪な労働環境を告発的に描いているプロレタリア文学である。本稿では、この二つのテキストが発表された時期の情勢的、文壇の状況を踏まえた上で、同じ「合宿所の夜」という題目が付され、撫順炭鉱という同じ場所を物語の空間的な背景にする二つのテキストが、その内容も表現言語も全く異なるということを問題にした。さらに、テキストに散りばめられた、実際の事件・事象を追跡していくことで、作家の政治的な意図をより明確に読み取り、「満洲国」以前、〈朝鮮〉のプロレタリア文学者にとって〈満洲〉という空間がもった意味を明らかにした。空間的な背景を同じく「満洲」の炭鉱街にしながらも、日本語版においてはそこが「満洲」であると確定できないほど、「満洲」というトポスのもつ固有の意味は希薄であり、ある炭鉱の「合宿所」という具体的な物語の現場として存在するだけであった。

それに対して、韓国語版において「満洲」の「炭鉱王国B市」は、朝鮮人炭鉱労働者が「把头制」という二重搾取の雇用制度のなか、日本人の監督の下で働く抑

圧 / 被抑圧の空間として描かれている。また、「満洲」は五・三〇事件に刺激され、中国全土に広がった反資本主義・反帝国主義運動が起こっている現場であり、そのなかで朝鮮人【「私」】が指導的な位置を占めて活動する場であった。それにまた「満洲」は、馮玉祥と張作霖がそれぞれ日本とソ連の力を背負って対決する戦場で、「不逞鮮人」の武装独立抗争と日本帝国軍の「討伐」が繰り返される場でもあった。前節で確認したように、韓雪野はこのような「満洲」における歴史的事実を背景に、民族や国家の境界線を越えた反帝国主義・反資本主義の連帯を、韓国語版「合宿所の夜」のなかで反復的に提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に「満洲」という場は素朴な文学的モチーフから民族・階級闘争の場へと、その描かれ方が変化している。韓国語版において、「満洲」は大きな意味をもつ。「満洲」は様々な力が集まり、拮抗・迎合しながら交差し、様々な戦争と闘争が展開する「超国家的空間」であるがゆえに、朝鮮では表現・実現できない脱国家・脱民族的な連帯、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プロレタリアート【または被抑圧民族の民衆】の団結と革命が叫ばれるに相応しい空間なのである。このような多様な力が重層的に交錯する「満洲」というトポスは、韓に「満洲」を積極的に描かしめる要因であると同時に、朝鮮をもってしては描けない、政治的に制約された限界を突破する手段としても機能したのである。